

태안군, '항구적 가뭄대책'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박차

윤 김정식 기자 | 2021.12.24 16:02 승인

23일 '태안군 가뭄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' 개최

[충청뉴스 김정식 기자] 충남 태안군이 가뭄피해의 항구적 대책마련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.



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'태안군 가뭄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' 모습.

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군노 태안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군의원, 용역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'태안군 가뭄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'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군 가뭄대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발생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영농방식 변화 등으로 상습 가뭄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·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.

군은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와 (주)삼안, (주)수리이엔씨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으며, 이날 최종 보고회를 끝으로 용역을 마무리하고 향후 본격적인 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.

특히, 이번 가뭄대책 용역은 충청남도 1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수립된 것으로, 향후 가뭄 발생 시 충청남도의 모범적 모델로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.

보고회에 따르면, 군은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단기·중기·장기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단계적 가뭄대책 마련에 나서며, 기존 시설의 여유수량을 활용하고 신규 저수지 개발을 통해 총 1만 5909ha에 대한 용수공급을 추진한다.

또한, 경제성과 개발여건, 사업의 지속성 및 계획성 등을 지표로 투자 우선순위를 산정하고, 태안군 물 부족의 58%를 차지하는 안면지구의 가뭄 해결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과 연계한 대책 마련에 힘쓰는 등 효과성을 극대화한 가뭄대책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.

군 관계자는 “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처치식 해결책이 아닌 항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것”이라며 “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정식 기자